

빠알리 경장 '다가 니까야' 각목 스님, 최초 한글 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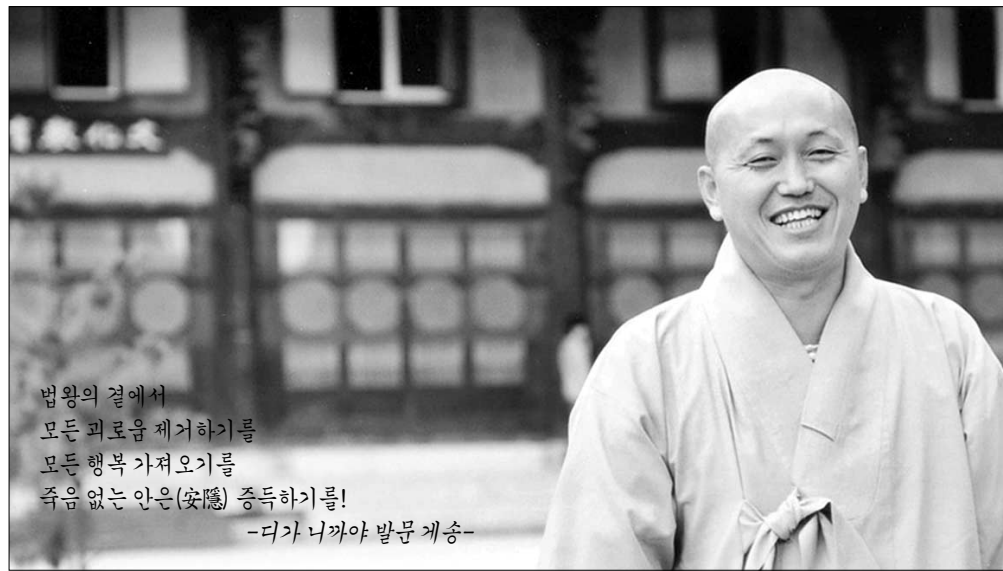
다가 니까야
각목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 각권 3만원

부처님 가르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빠알리 경장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다가 니까야>(長部, 길게 설하신 경)가 처음으로 한글로 완역됐다. <다가 니까야>는 역사 각목 스님이 1989년 빠알리 삼장 한글 완역의 원을 세우고 인도로 유학간지 17년 만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빠알리 삼장의 본격적인 번역서이다.

이 책의 내용은 우주와 인간, 삶과 역사, 끝없는 윤회의 실상등 경전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스님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서를 참조, 상좌부의 전통경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0여개가 넘는 방대한 주해를 달았다. 또 주석서 서문을 모두 번역해서 수록했으며, 40쪽에 가까운 역사 서문을 넣었고 각각 25쪽에 달하는 각권의 해제를 달았다.

전 3권으로 출간된 <다가 니까야>는 제 1권 계온품 616쪽, 제 2권 대품 600쪽, 제 3권빠따까품 688쪽으로 모두 34개의 경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총 1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한글완역의 원을 세우고 인도유학 17년만에 빠알리 경장의 처음부분인 <다가 니까야>를 번역한 각목 스님.

제 1권 계온품은 주로 바라문, 의도 수행자, 왕 등 당대 지식인이나 수행자들에게 제정해 3왕이 핵심 주제이다. <법광경>등 13개의 경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품에서는 인도와의 대화, 불교가 인도화 되어 가면서 종교의 큰 틀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 2권 대품은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마하고원다의 생애, 대선견왕 이야기, 인드라, 업과 윤회, 연기의 가르침등 <대전경>등 10개 경이 수록되어 있다.

제 3권 <빠따까경>등 11개의 경이 포함된 빠따까 품은 재가자의 삶, 서른두 가지 대인의 상호, 아따나피야 보호주, 인류의 타락과 향상의 역사, 진정한 고행의 완성,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가르침, 세상의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소개된다.

각목 스님은 1979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법선원에서 8년 정진하다가 빠알리 삼장을 한글로 옮기려는 원을 세워 10여년간 인도와 미얀마 등지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를 배웠다. 인도 뽀나대 산스크리트 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역서로는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전 분석과 주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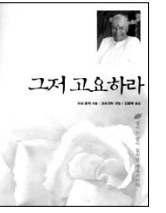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를 맡고 있으며, 지리산 실상사 화림원에 머물며 빠알리 삼장의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새로운 책

■ **그저 고요하라**(슈리폰자 지음,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 이 책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북인도에 살았던 슈리폰자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얘기들을 모은 것이다. 슈리폰자는 14세가 되던 해 붓다의 일생이 담긴 그림 역사 책을 보고 그와같이 되겠다고 결심한 뒤 시식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리를 황토색으로 물들인 가사를 만들어 탁발을 한다. 그러다 끝내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가장 숭고하고 단순한 진리는 우리의 순수한 식이며, 존재자체라고 말한다. 그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언어로 얘기하지만 동시에 모든 말들은 진리를 가리키는 지시물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그는 날마다 부처언히 이 지시를 따르되 말들에 얽매이지 말라고 권한다.



■ **불교입문**(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 조계종 포교원이 발행한 <불교 입문> 개정판이 나왔다.

2001년 초판발행후 24쇄를 찍어 총 25만부를 발행한 이 책은 조계종 신도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불교에 대한 입문서이다. 개정판에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교리인 공과 마음이 추가 됐다. '철을 찾아서' '불교란 무엇인가' '진리의 세계' 부분도 부분 수정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신앙의 대상으로서 부처님의 의미를 부각했다. '현대사회와 불자의 생활' 제목을 개정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으로 바꾸었으며, 불교 역사는 생략했다.



■ **율유 불교산책**(이태승 지음, 정우서적) = 해방 60년의 불교의 사상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불교라 하며, 그 과정의 사상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한다.

책의 구성을 보면 1~25장은 근본불교에서 부파불교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26~50까지는 대승불교에서 시작하여 티베트 한국의 불교로 마무리 하고 있다. 또 책의 말미에 저자의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깨달음의 종교에서 지혜의 종교로' 등 두 편의 논문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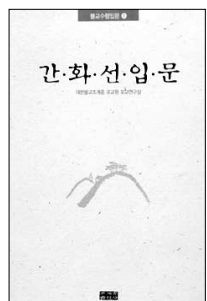
yosiamun.com 추천도서

- 위신 품고 엄복하게 불광, 김지수, 1만원
- 오체투지 작가의 집, 한경희, 9000원
- 이야기로 깨닫는 기쁨 현인, 사라 콘오버, 9800원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무한, 법성스님, 1만원
- 붓다의 나라, 미얀마 운주사, 김행규, 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초심자를 위한 간화선 안내

주요 개념과 실천지침 쉽게 풀어



간화선입문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출판사 | 8000원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간화선은 무엇인지, 어떻게 화두를 들고 참구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에게도 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상 마땅한 지침서가 없다.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전국선원수좌회의 도움으로 <간화선>을 발간하기도 했지만 초심자들에게는 내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조계종 포교원이 <간화선>을 골격으로 하여 일반인들도 간화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을 위한 입문서를 펴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고 체계적으로 생활선인 간화선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간화선을 재가불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행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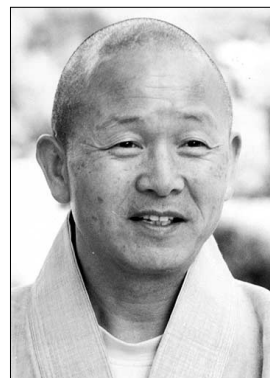
책에서는 생활인이 일생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화두를 들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안내한다. 또 선의 효과와 특징을 제시하여 왜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이밖에도 간화선의 개념, 화두의 개념, 그밖에 간화선 수행체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입문적 단계에서 간화선 전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우 기자

당신은 늘 깨어 있습니까?

순박하고 정직하게 사는 지혜 180가지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사진)이 쓴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가 10쇄를 거듭하면서 판매 부수 3만부를 돌파했다. 지역 출판사에서 펴낸 불교서적으로는 보기 드문 부수다.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후속편으로 펴낸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다.

부산 불교방송 '생활속의 부처님 말씀'에 내보냈던 방송 원고를 정리한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간결한 이야기 180편을 엮어 놓

았다.

'맑은 듯 돌려주는 기쁨' '소중함을 아는 사람' '고요한 바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눈 감은 듯 걷는 걸음' '강물 속의 보물상자' 등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일상 생활가운데서 일어날법한 마음 작용과 지혜로운 마음씀을 짚는 예화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혜총 스님은 '불자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판에 박힌 대답 대신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임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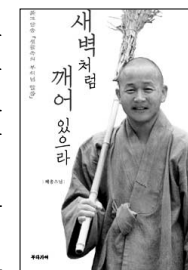
이 책속의 예화들에는 등장 내일로 다쳐 죽을 죽음도 모른채 호화로운 집짓기에 바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늙은 노인,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그 화살을 뽑는데 게으른 사람, 더 달콤한 사탕수를 만들기 위해 사탕수수즙만을 나

무에게 줘서 나무를 오히려 죽이는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 등이 등장한다. 모두 일상의 우리를 거울에 비춘 듯 맑은 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해산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혜총 스님 특유의 쉽고 간명한 언어가 돼 다가온다.

1953년 통도사에 입산, 대울사인 자운 대종사를 40년 동안 시봉한 혜총 스님은 율호복자관 관장으로 활동하며 복지현장에서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들은 물론 기도, 참회, 열반 등 다양한 공부법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도 모아놓았다.

혜총 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줌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잠깐인 삶을 전부인양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이 제시해 놓은 가르침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반조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책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혜총 스님 지음 | 부다가야 | 1만2000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허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물담고 몇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아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불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한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풀칠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연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주)국민퍼낸트
통일 415051-51-000057 (주)국민퍼낸트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이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